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 새날이 동튼다

(스바나 3장 1 - 20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언서의 주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상 여호와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암 9:11). 그 날은 여호와가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그 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 날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 1. 새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9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새 날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시온에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자기 자랑과 속이는 것이 모두 없어지고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4). 새 날은 진리와 의로 묘사된 날로서 참되고 의로운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참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중생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13절).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간 듯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입술이 깨끗한 자입니다(9절). 입술은 곧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람은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몰벡에게 맹세한 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열납 되려면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11, 12절). 교만의 뿔을 꺾고 겸손한 사람인지 스스로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매를 맞고 넘어져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곤고한 지경에 떨어져도 그 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13절). 거짓된 혀가 없다는 말은 도덕적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진보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일 2:3).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 2. 새 노래를 부르라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14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 오면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15절). 세상에 이 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터이므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 3.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20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16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십니다(17절).

하나님의 백성, 곧 남은 자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18절).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자기의 짐으로 여기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19절). 이 약속이 없었다면 새 날은 절망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새 날을 기다리며 새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공산독재 종식 · 민족복음화 목회자 금식기도 대성회

## 3월 1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본 교회 성도들은 4층으로

3월 1일 오전 10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기독교의 이단으로 나타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조국을 두 동강이 낸 북한의 공산독재를 종식시키고 분열된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자 이 땅에 세우심을 입은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식기도를 드린다.

조국의 위급함이 풍전등화에 비할 바 없는 이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될 이 자리에 교회갱신 연구원 동문을 비롯한 전국의 3000여 목회

자들이 초청되었다. 내일 우리교회당을 가득 메우게 될 이 은혜로운 자리를 돕기 위하여 차량관리부와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봉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본당 4층으로 자리를 하고 기도의 복병의 일익을 담당하기 바란다.

# 군 입대 젊은이들을 군 파송 준선교사로 세운다

## 3월27일(토) 705호실에서 첫 교육 가져

우리교회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민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고취하였다. 2020년 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한 황금어장인 군부대에 잘 훈련된 기독교 청년들을 '군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여 군복음화를 이루는 올바른 국가관과 신앙관을 가진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분기별로 1회씩 705호실에서 교육을 갖기로 하였다. 또한 본 교육을 수료한 성도들만 찬양예배 시 준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담임목사의 환송기도를 받게 되는 만큼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 군 파송 선교사 교육 일정표

장소: 705호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27(토)	6.26(토)	9.25(토)	12.18(토)
4.5.6월	7.8.9월	10.11.12월	'05년.1.2.3월
입대에정자	입대에정자	입대에정자	입대에정자

# 토요일에도 야간 전도활동을 펼친다

## 3월6일(토)부터

70인 전도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수요일 저녁에 야간 전도활동을 펼쳐서 많은 태신자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많은 전도대상자에 비해 전도하는 시간이 짧고 주5일제 근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토요일의 전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대청부 전도학교 수료생과 자원

하는 성도를 대원으로 3월 6일 첫째 토요일부터 한티공원에서 밤 7-9시까지 2시간을 켄라면과 어묵과 커피 등으로 대접하며 행인들에게 적극 복음을 전하고 교회출석을 권면키로 하였다.

대청부 수료자들은 집회를 마치고서 7시부터 함께 전도하며, 토요일 대청부 전도학교 교육생은 7-8시까지 공부 후 바로 실습을 1시간 가지므로 교육과 실습이 조화를 이루어 개인별 전도역량을 신속하게 갖게 할 예정이다.



# 핸드 차임 도착되다

우리교회 그레이스 핸드벨 팀에 핸드 차임이 더하여 짐으로 오르간과 함께 하늘의 멜로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오션혜 선생(방글라데시)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 것이다.

# 시온 찬양대 및 은빛 찬양대 새 지휘자 임명



김미진 선생

수년을 하루같이 충성봉사 해 오던 강민희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시온(수요II부), 은빛 찬양대(매월 첫 수요I부) 지휘자로 김미진 선생이 임명되었다. 김 선생은 계명대 교회음악과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했고 장신대 대학원 교회음악과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있다.

# 찬양대 양성반 다음주일 개강

## 3월7일(주) 오후 1시30분 601호

서울교회 찬양대원이 되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예비과정인 찬양대 양성반 개강이 다음주일(3월 7일) 601호실에서 2부예배후 오후 1시30분에 시작된다. 7주에 걸쳐 찬양대 양성반을 수료한 후에 희망하는 각 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윤영국 지도 목사의 영성훈련과 박정선 장로의 지도로 호흡법, 발성법, 지휘 보는 법, 악보 보는 훈련, 음악 기초 이론 등을 기초부터 배우게 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코자하는 분은 누구나 양성반 코스를 수료해야 하는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신앙강좌 두개 부서 합병키로 하다

현재 신앙강좌 I 을 담당해주시던 김영한 목사가 승실대 교수로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감에 따라 신앙강좌 II와 합병키로 하였다. 현재 신앙강좌 I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603호실에서 열리는 신앙강좌 II(담당 김재진 목사)에 참석하면 된다.

### <인사이드>

당회는 다음 몇 사람을 각각 직임을 따라 2월25일부로 임명하였다.

- 김광신 장로: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 박두호 장로: 가브리엘 찬양대 성경공부 교사
- 윤운식 집사: 헌금계수위원
- 윤숙희 집사: 수요 어린이 예배 부감
- 이갑연 집사: 2교구 7다락방장
- 조현정 선생(5교구), 강요혜 선생(1교구): 새벽기도회 반주자

3.1절 특집 -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 제암리 교회편

# 그 날의 부르짖음을 민족 가슴에...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30여분 간 내려가다 발안인터체인지에서 국도로 빠진 지 5분. 농촌 마을의 고즈넉함이 물어 나는 국도 변에서 순례자 취재진은 제암리 교회를 표시하는 커다란 이정표를 찾아냈다. 경

기도회성서 향남면 제암리에 있는 3.1운동 순국기념관과 제암교회는 지난 2001년 3월1일 새롭게 단장해 개관하면서 그 모습이 한껏 웅장하고 깨끗해졌다. 기념관 진입로에 세워져 있는 3.1운동 순국기념탑은 사적 299호로 1919년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 예배당이 있었던 자리에 세운 탑이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제암리 사건의 자취는 8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9년 3월부터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거센 파도처럼 온 나라로 확산돼 3월 28일에는 제암리 근처 발안 장터에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천여 명의 주민들이 발안 장터에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일본 경찰과 헌병들은 특

히 시위를 이끈 기독교인에 대한 색출작업을 벌였다. 4월 15일, 일본경찰은 시위주동자들을 제암교회로 모아 감금시킨 뒤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향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그 자리에서 23명이 숨졌고 가옥 30여 채가 불탔다. 이 가운데 11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만세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기독교인과 제암교회에 대한 무차별한 보복이었다. 학살이 자행된 뒤에도 일제의 감시 때문에 희생자들의 시신과 유골이 방치됐지만 사건을 전해들은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며칠 후 불탄 교회를 방문해 공동 묘지에 묻으면서 수습될 수 있었다.

자칫 망각될 뻔했던 제암리 사건이 규명되기 시작한 것은 40년이 지나면서부터다. 1959년 예배당 자리에는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세워졌고, 1970년에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속죄의 뜻을 담아 보내온 1천만 엔의 성금으로 새 교회와 유족회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

3.1운동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이 기념관에는 민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구할할 기독교인들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



을 취재팀은 느낄 수 있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옛날 기독교인의 기도의 향성을 지금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 곳곳은 부정부패로 악취를 풍기며 도덕과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이에 3월1일 우리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과 더불어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독습을 버려 국가를 구하려 했던 제암리 교인들을 본받아 이 나라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할 예정이다.

이 기도를 발판으로 온 민족의 회개가 불같이 번져나가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글: 김민철, 사진: 오주명(편집부)

## 결혼 예비학교로 오세요!

김영희 집사(결혼예비학교총무)

하나님께서 빼 가신 갈비뼈 한 짝이 그리우십니까? 결혼 예비 학교로 오세요.

신혼가정부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해 결혼 예비학교를 개설합니다.

흔히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풍성하고 복된 삶에 대해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혼식 자체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신혼의 삶이 시작되지만 애인이 아닌 부부로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사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비부부들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정립하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실제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인성의 조화와 신혼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모여 한 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교제를 나누면서 각계의 전문 강사님들을 통해 배우자의 성격차이의 발견과 상호 이해하기, 부부 대화 기술, 신혼의 성스러운 성, 부부 갈등의 건설적인 대처방법,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강의 듣게 됩니다.

3월 7일부터 5주간 프로그램이며, 계속 반복되므로 결혼을 앞두고 언제든지 등록,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약하는 모든 커플들과 자원하는 모든 커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 20분까지 403호에서 축복되고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산독재 종식 · 민족복음화 목회자 금식기도 대상회 준비 모임취재

# 주 여! 이 일을 이루소서!



'공산독재종식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3.1절 목회자 금식기도 대상회'가 내일로 다가왔다. 오전 10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목회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과 사회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 어두운 현 시국을 바로 진단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16일) 교계의 목회자 30여명이 우리교회 비전홀에 모여 그 준비모임을 가졌다. 공동대회장인 이종운 목사를 필두로, 준비위원장 이태희 목사(성북교회), 김상철 장로(미래한국신문 회장)는 "지금 한국은 사회적 악행이 가득하다. 먼저 '위기 의식을 일깨우고 교회 지도자들의 반성과 회개를 위해 금식기도 대상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이번 대회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회의 모토는 첫째, 한국교회의 회개와 사명 각성, 둘째, 북한 공산독재 종식 촉구, 셋째, 민족복음화와 북

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다. 전국의 목회자 3천여 명이 이 대상회에 참가해 금식기도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회 준비위 측은 하루 200만 부 이상 발행되는 주일간지에 6,7회 정도 광고를 게재하고 교계신문과 기독교계 방송에 여러 차례 안내 광고를 할 예정이다. 또 서교교회에서 만 전국에 있는 만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전국적인 교계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특 biệt히 이번 대상회에서 제시될 사회적인 공식제안으로 '5월 마지막주일을 국민기도주일'로 정하는 것과 '북한 민주화추진 기독교연합'을 설치하는 두 가지 안이 채택돼 참석자 전원에게 박수로 동의가 있었다. 이번 기도 대상회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각성, 민족복음화 및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한 왕성한 한국교회의 활동이 있을 것으로 준비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주명(편집부)



천국일꾼 양성 - 신입생들에게

#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노론 환장로 (교육 위원장)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첫 학기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마음 뿌듯한 일인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다음 몇 가지 일들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 안에서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쉬우며 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주변에서 혹은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단기 목표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그리고 1년 단위의 단기 목표들을 세우고 그때마다 실천 여부를 점검하여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명심할 일은 욕심을 부려 실천하기 힘든 계획들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고 부족한 듯 할지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 하신 잠언 16장

9절의 성경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시작은 바로 매일 매일 성경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며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새 학기를 맞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내며 성경 말씀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찬양 드리는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믿음 안에서 힘차게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일꾼 양성 - 유아기의 신앙교육

# 기독교적 유아교육의 중요성

박금실 전도사(유아부 지도)

여러분은 조그마한 아이가, 그 작은 발걸음으로 아빠의 긴 보폭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뒤통거리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기는 얼마나 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기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아빠를 쳐다보는 아기의 눈 속에서 아빠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눈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께 대한 이러한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그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울까요?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는 첫 날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출생 후 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또한 만 60개월 안에 인성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더욱 유아교육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대해 가르칠 것인가?"라는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신세대 주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보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신세대 주부들은 적어도 21세기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자기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보에 뒤질 수 없다는 각오로 뚝뚝 문쳐져 있어 "정보"와 "지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9:1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란 "처음", "유



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을 믿는 부모는 종교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주 예수님만이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이며, 신뢰해야 할 진리이며, 살아야 할 생명임을 나타낼 때에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모방합니다. 하나의 본을 보이는 것이 열 가지의 충고보다 귀한 것입니다.

유아기의 학부모 여러분!

그 무엇보다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돌봄을 통해서 신앙을 경험합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또한 사랑에 반응하는 본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 유아부에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돌보는 40여분의 교사들이 매주 아이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부 예배를 통해서

첫째,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셋째, 또래 그룹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정과 연계하는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 의해서 교회학교에 인도되는 바로 첫 순간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선하게 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복을 맘껏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월 4일(목) 연세 조찬기도회, 대치동 교회협의회를 각각 소집, 참여한다.

■ 발령: 이명주권사(3교구) 덕수중학교 교장으로 발령(2월 27일)

■ 득남: 1교구 노병호 성도 홍지나 성도가정(2월 23일)

■ 주간 식당봉사: 도르가여전도회(2월 29일) 루디아여전도회(3월 7일)

■ 금주의 식사: 김영호 집사 (김양숙 집사)가정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li> <li>■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li> </ul>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li> <li>■ HLXK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산나넷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li> <li>■ 기독교 TV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li> </ul>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 세미나, 서울 성경대학, 주부대학, 살롬 경로대학,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공산독재 종식 · 민족복음화 · 3.1절 목회자 금식성회를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외약도 :

